遊岳飛廟

悲壯歷史流水去
浩氣忠魂留世間

위덕(威德)

대법이 몸을 떠나지 않으니
마음에 眞善忍(쩐싼런) 있네
세간의 대나한(大羅漢)
신도 귀신도 몹시 두려워하네

1996년 1월 6일

佛主

誰知天地大
銀河在脚下
乾坤有多遠
轉輪手中拿

一九九六年一月六日

유위(有爲)

절을 짓고 신을 모시느라 정말 다망하지만
유위란 한낱 헛된 노릇임을 어찌 알리요
어리석고 미혹되어 서천(西天) 길 망상하나니
더듬더듬 밤길에 달을 건지고 있네

1997년 3월 28일

有爲

建廟拜神事眞忙
豈知有爲空一場
愚迷妄想西天路
瞎摸夜走撈月亮

一九九七年三月二十八日

불주(佛主)

누가 알리요 천지의 크기를
은하가 발아래 있구나
건곤이 얼마나 멀리 있든지
전륜은 손 안에 있구나

1996년 1월 6일

法輪世界

美妙窮盡語難訴
光彩萬千耀雙目

집착을 내려놓자

세상사람 모두 미혹되어
명리에 집착하누나
옛사람 성실하고 착하여
마음 고요하고 수복을 갖추었네

1996년 12월 25일

放下執著

世間人都迷
執著名與利
古人誠而善
心靜福壽齊

一九九六年十二月二十五日

法輪世界(파룬쓰제)

미묘하기 그지없어 형언키 어렵나니
천만갈래 찬란한 빛 눈이 부셔라

佛國聖地福壽全
法輪世界在高處

一九九六年一月二十三日

말법(末法)

세상사람 어질지 아니하고
신(神) 또한 신통치 못하며
인간세상 도(道) 없으매
정념이 어찌 있을쏘냐

1996년 12월 22일

末法

世人不仁
神也不神
人間無道
正念何存

一九九六年十二月二十二日

불국성지는 수복(福壽)을 갖추었나니
法輪世界(파룬쓰제)는 높은 곳에 있도다

1996년 1월 23일

緣歸聖果

尋師幾多年
一朝親得見
得法往回修
圓滿隨師還

一九九六年一月二十三日

난중불난(難中不亂)

정법 전(傳)함은
어렵고도 어렵구나
만마(萬魔)가 가로막나니
험난 속에 험난이 있구나

1996년 12월 22일

難中不亂

正法傳
難上加難
萬魔攔
險中有險

一九九六年十二月二十二日

연귀성과(緣歸聖果)

사부님 찾은 지 몇몇 해인가
하루아침 친히 뵈옵게 되었구나
법 얻어 되돌아 수련하나니
원만하여 사부님 따라 돌아가리라

1996년 1월 23일

遊響堂山寺

日月輪流轉
乾坤是轉輪
拈指二百年
響堂舊無存

一九九六年三月六日

심명(心明)

사부 법 널리 전해 중생제도 하나니
온 천하에서 경(經) 얻어 법선에 오르네
십악독세에서 대법(大法)을 전하고
法輪(파룬)을 돌리니 건곤이 바르도다

1996년 10월 16일
애틀란타에서

心明

爲師洪法度衆生
四海取經法船蹬
十惡毒世傳大法
轉動法輪乾坤正

一九九六年十月十六日

於亞特蘭大

향당산사(響堂山寺)를 거닐며

일월(日月)이 번갈아 도나니
건곤은 돌아가는 바퀴라네
손꼽아 헤어보니 이백 년이라
향당의 옛 모습 간 데 없구나

1996년 3월 6일

登泰山

攀上高階千尺路
盤回立陡難起步
回首如看修正法
停於半天難得度

중생을 널리 제도하다

속인의 마음 내려놓고
법(法) 얻으면 신(神)이로다
삼계를 벗어나
하늘에 올라 부처의 몸으로 타고나도다

1996년 10월 16일

廣度衆生

放下常人心
得法卽是神
跳出三界外
登天乘佛身

一九九六年十月十六日

태산(泰山)에 올라

높은 계단 천 척 길을 오르나니
가파른 굽이굽이 발걸음이 더디네
고개를 돌리니 마치 정법수련을 보는 듯
반공중에 멈추면 제도받기 어렵도다

恒心擧足萬斤腿
忍苦精進去執著
大法弟子千百萬
功成圓滿在高處

一九九六年四月十五日

변이(變異)

음양이 뒤바뀌어
세상사람 마음 변했구나
귀신과 짐승 온 누리에 퍼져 있고
사람은 도(道)를 멀리 떠났구나

1996년 9월 26일

變異

陰陽倒懸
世人心變
鬼獸遍地
人離道遠

一九九六年九月二十六日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근다리 옮기나니
괴로움을 참고 정진하며 집착을 버리네
천백만 대법제자
공성원만하여 높은 곳에 있도다

1996년 4월 15일

圓滿功成

修去名利情
圓滿上蒼穹
慈悲看世界
方從迷中醒

一九九六年四月二十一日

고도(苦度)

재난이 오기 전에 법선(法船)을 몰고 오나니
억만 험난함이 첩첩이 막아서누나
산산조각 건곤을 싣고
만년꿈 꾸며 마침내 기슭에 닿네

1996년 9월 23일

苦度

危難來前駕法船
億萬艱險重重攔
支離破碎載乾坤
一夢萬年終靠岸

一九九六年九月二十三日

원만 공성(圓滿功成)

명리정(名利情) 닦아버리고
원만하여 창궁에 오르네
자비로 세계를 보나니
그제야 미혹 속에서 깨어나네

1996년 4월 21일

太極

眞人蓋世張三豊
大道無敵天地行
後世爲名亂拳法
改吾太極壞吾名

一九九六年七月一日

태극(太極)

세상의 으뜸 진인 장삼풍(張三豊)
대도무적이라 천지에서 행하네
후세사람 명예 위해 권법을 난잡케 하나니
나의 태극을 고치고 내 이름을 더럽히누나

1996년 7월 1일